일본 원로학자 "나주 동학혁명 일본군 만행 사죄"

한·일 국제학술대회서 동학 재조명
농민군 위로 위령탑 건립계획도 밝혀
市·원광대·한일동학교류회 협약
나주 동학 위상 정립·교류 활성화

지난 30일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한·일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노우에 카츠오 홋가이도대 명예교수가 동학 농민군 토벌 역사에 대해 공식 '사죄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동학농민혁명(1894년)을 새롭게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나주에서 열렸다.

나주시는 지난 30일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소극장에서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해 박맹수 원광대 총장, 신정훈 전 국회의원, 이노우에 카츠오,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나주 동학농민혁명, 한(恨)에서 흥(興)으로 승화하다'라는 주제로 동학혁명에 대한 한·일 근대 역사학자들이 연구 성과 공유를 바탕으로 동학혁명의 위상과 의의를 새롭게 정립하고 일본의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아 진정한 사죄로 양국 민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인사말에서 "조선이 기울어가는 무렵 나주와 동학농민운동은 역사의 용광로 속에서 만났고, 그 흔적이 나주 곳곳에 남아 있다"며 "한·일 국제학술대회가 함께 손잡고 화해와 평화시대로 나아가는 귀한 첫걸음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학술대회에서 이노우에 카츠오 홋가이도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에 앞서 '나주 심포지움에 감사와 사죄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노우에 카츠오 교수는 사죄의 글에서 "1895년 동학농민군 토벌대대인 일본군 후비독립보병 제19대대가 조선의 사법권 속에 있었던 농민을 대학살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잔혹한 토벌전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발굴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측은 동학농민군 학살 공식 사죄와 함께 향후 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농민군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탑을 나주에 건립하는 계획도 밝혔다.

나주는 동학 혁명 역사 속에서 농민군의 한(恨)이 서린 장소이다.

1894년 동학 농민군이 나주읍성 점령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나주토벌본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농민군 토벌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일본의 원로사학자이자 양심적인 일본인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는 '동아시아 역사속의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기조강연에서 "동학농민군 몰살작전을 전개한 할아버지 시대 일본군대 만행에 깊이 사죄드린다"며 "최근 조선에 대한 편견의 새로운 막을 열고 있는 아베 신조의 일본정부가 '역사적 무지'에 빠진다면 일본에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맹우 원광대 총장은 "동학 역사 재조명을 위한 한·일 간 공동 연구를 나주에서 공식화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봉준의 '보국안민'을 위해서 일으킨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평화사상이 나주 동학의 미래화, 세계화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로 동학혁명 초토영(토벌본부)이 설치됐던 나주는 농민군 토벌에 대한 한·일 간 연구 성과를 통해 동학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게 됐다.

한편 학술대회에 앞서 나주시는 지난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원광대, 한·일 동학기행시민교류회와 '나주 동학 위상정립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나주 동학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공동 자료조사, 연구, 한·일 시민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가기로 했다.

특히 한·일 동학기행 시민교류회는 내년에 동학농민군을 학살했던 일제의 만행에 대한 진정한 사죄의 의미로 일본 시민들이 '사죄단'을 구성해 나주를 답사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나주교육청 안전한 학교 만들기
'3人 3色 학폭 예방 토크 콘서트'

나주교육지원청이 안전한 학교·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톡톡! 3人 3色 학교폭력 예방 토크 콘서트'를 실시했다.

나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9일 한전KDN 빛가람홀에서 관내 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가고 싶은 나주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또래지킴이 발대식과 2부 학교폭력 예방 토크 콘서트로 진행됐다.

1부 또래지킴이 발대식에서는 관내 초중고 학생회 임원과 참여 희망학생 120여 명이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앞장서서 지켜주겠다는 의미로 교육지원청에서 제작한 또래지킴이복장과 배지를 착용한 후 '또래지킴이 다짐문'을 선언했다.

또 2부에는 도교육청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과 김충식 유스앤피플 대표, 한선희 광주아동보호기관 관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관객들과 자유롭게 질문을 주고받는 토크쇼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중학교 연합학생회 이지원 학생(나주중 3년)은 "주위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남도교육청 생활안전과 김성애 과장은 "요즘은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처벌이 아니라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제25회 나주시민의 날' 기념식 성황리 개최
나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탑 제막식도

12만 나주시민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제25회 나주시민의 날' 기념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나주시는 지난 30일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야외광장(옛 나주역사 일원)에서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손금주 국회의원, 김선용 나주시의회 의장, 이명한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나주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시민의 날 행사는 일제강점기 3대 항일운동으로 꼽히는 나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기념해 열린 '10·30문화제'와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제막식을 연계해 진행했다.

기념탑은 총 7.9m 높이로 탑 최상부에는 나주학생독립운동을 촉발시킨 조선인 학생 3인의 동상이 세워졌다.

동상을 받치는 8각 받침은 학생독립운동이 나주에서 시작돼 전국 8도로 뻗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념식은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제막식을 시작으로 나주 비전을 담은 기념 동영상 상영, 시민의 상 및 시정발전 유공표창, 자매결연도시 축하 영상, 시민의 노래·독립군가 합창 순으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시민의 상은 충효도의 부문에 이명한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장이, 교육문화 부문에 남종호(원일스님) 세지중학교 이사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장수상은 김형수(100세·금천면)옹과 장북실(103세·남평읍)여사가 수상했으며 ▲효자상 손경식(성북동) ▲장한 어버이상 조명산(문평면) ▲선행시민상 이도형(이창동) ▲선행학생상 김나현(나주초) 등 총 30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나주시 자매결연도시인 서울시 동대문구와 충북 음성군에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시민의 날 행사를 축하했다.

강인규 시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천 년 동안 나주인의 의연함과 강인한 기상은 우리 역사 곳곳에서 유감없이 발휘됐으며, 역사의 격변기마다 우리를 지켜낸 힘이었다"며 "호남의 중심도시,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위대하고 당당한 나주시대를 열어가는데 12만 시민의 힘과 지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나주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연중 단속 돌입

나주시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소음·매연 발생 등으로 빚어지는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불법으로 밤샘 주차를 일삼는 화물차에 대한 연중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나주시는 지난 26일부터 실시된 화물차 밤샘 주차 집중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화물차공영차고지 준공을 앞두고 올해 3월부터 지난 25일까지 사전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차량이 많아 강력한 단속에 나서게 됐다.

위반 차량 단속은 자정(밤1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하는 영업용 화물·여객차량이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3~5일 또는 10~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도로변에 무단 밤샘 주차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상습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차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운수업체 버스는 지정 차고지에, 대형 화물차는 지정차고지 또는 올해 말까지 무료로 개방하는 화물차공영차고지를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